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

열,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어 립체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마감공사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난방과 조명보장대책을 더 잘 세우며 급배수계통시운전을 비롯한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려명거리에 봉사망들을 전개하는 단위들에서 준공식이 끝나는것과 함께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운영준비를 착실히 해놓을데 대한 문제 등 려명거리건설완공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리마시대의 승격이 맥박치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금 강렬하게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파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태양절까지는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림으로써 려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법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고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뎀는 심장에 받아안은 전체 건설자들은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전으로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창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무엇으로 굳건하고 이 땅에서 울리는 투쟁과 행복의 노래소리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드높은가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똑똑히 파시할 불타는 명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